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솔라시도)의 구성지구 개발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다. 사진은 관광레저도시 조성을 앞둔 영암방조제 일대 현장.

‘J프로젝트’ 구성지구 개발 어떻게

의료·휴양...해양 레저도시 전남의 관광지도를 바꾼다

상주인구 1만8300명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솔라시도) 개발사업은 낙후된 전남 서북권에 대규모 관광시설을 건설하는 전남도 최대 역점 사업이다.

1455만평(48.1km²)의 부지에 F1 경주장, 의료·건강·휴양타운, 골프장 등을 건설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10여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J프로젝트는 구성·삼호·삼포지구로 나눠 개발되는데 13일 기공식을 여는 구성지구에는 18홀 기준 골프장 7개가 들어서는 등 해양관광 레저도시로 조성된다.

한마디로 구성지구 개발은 전남의 관광 지도를 바꾸는 사업이다.

구성지구는 1·2단계로 나눠 사업비 1조1037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토지매립과 진입도로 건설 등 도시 기반시설 조성하고 함께 골프장 건설, 레저주택, 골프빌라, 시니어 빌리지를 조성한다.

호텔 및 리조트, 통합의학병원, 휴양 숙박시설 등도 건립한다. 남도의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남도음식문화촌과 컨벤션센터, 워터파크, 마리나 시설, 승마장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공문화·교육시설, 터미널, 행정타운, 씨네마타운, 바이오에너지파크,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의 편의·생활시설 등도 자리 잡게 된다.

‘J프로젝트’ 다른 지구 개발은 ...

삼호지구 -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승인·개발사업 착공
삼포지구 - F1경주장 준공 ... 2단계 개발 업체 물색 중
송천지구·초송지구·부동지구 개발 중단 사업계획 취소

영양·해반 일대를 개발하는 서남 해안관광대지형기업도시(일명 J포젝트)는 원래 6개 지구로 나뉘 추진됐지만 송천지구와 초송지구에 이어 부동지구마저 개발이 중단되면서 시흥 구상 10년 만에 계획의 절반이 취소된 상태다. 현재는 구성지구를 포함한 삼호지구, 삼포지구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삼호지구는 영암군 삼호읍 일대 866만1000㎡(262만평)에 18홀 기준으로 골프장 4.5개(81홀·321만1000㎡) 및 대규모 스포츠·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와 SPC 서남해안레저간 땅값 감점평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 양도·양

수 협약 수정을 협의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남도는 올해 안에 간척지 감정평가
가를 마치고 간척지 부지 양도·양수
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
설계 승인 및 개발사업 착공에 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영암군 삼호읍 일대 430만㎡(130만평)에 F1 경주장을 비롯해 1만명이 상주할 수 있는 복합레저스포츠도시를 조성하는 삼포지구도 1단계(F1경주장)는 준공했지만 다른 부지의 개발이 더디다.

현재 2단계 개발을 맡을 사업주간사를 선정하지 못해 지난 5월 관련 용역을 중단했고, 업체를 물색 중이다.

그동안 삼포지구는 중국 업체로부터 15억 달러 투자 유치를 협약하기도 했지만 실제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사업참여 투자자를 계속 찾고, 여의치않을 경우에는 전
남개발공사를 주사업자로 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도 민간지분이 30% 이상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J프로젝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22조1689억원, 고용유발 22만7435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뻔뻔 이사’들 민립대학 위상 먹칠 그만

2013 이슈 진단

2013년 광주·전남지역 대학가의
최고 뉴스는 단연 조선대 이사회의
파행 운영이다.

이사 전원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이사진을 구성하지 않은 이사부존재 상태가 1년가량 장기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사들은 수차례 회의와 논의

4 조선대이사회 파행

우선적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지난 9월30일 일반이사를 뽑으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일부 이사 등이 법원에 선임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사태는 본격화됐다.

여기에 조선대학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등 학내 각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민주이사추천위원회 등이 개방이

지만 행정적으로나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퇴할 수 없으며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법원의 판결 이후 교육부가 지난 2일 조선대 이사회 사태에 대한 강경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조선대 상황을 '이사 부존재' 상태로 규정하고, 조속히 이사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임시이사를

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임시 이사를 과전할 예정이라는 점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조순대 이사회는 1년 가까이 스스로 차기 이사진을 구성하지 않다가 법원의 결정과 교육부의 경고를 못이겨 후임 이사들을 선임해야 하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오는 23일 개방이사를 포함한 차기 이사진 선임을 논의할 조선대 이사회에 학교 구성원과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대는 19일부터 대입 정시모집을 해야 하고, 4학년과 졸업생들은 인생에 있어 중요한 취업시즌을 맞고 있다. 대학 입시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시야는 아무런 명분도 없이 1년 가까이 후미 선정을 미뤄왔다. 이제 법원의 판결과 교육부의 결정인 있었던 만큼 사심을 버리고 대학의 미래와 위상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조선대 관계자는 “조선대는 호남 거점 사립대이자 지역민의 손으로 세운 민립대학이라는 영예로운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서 “대학발전에 별다른 기여도가 없는 이사들이 조선대의 명예에 먹칠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13년에도 쌍용자동차를 성원해 주신 모든 고객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쌍용자동차

진정한 프레스티지 세단은 4-Tronic으로 완성됩니다

국내 최초 4륜구동 대형세단, **체어맨W 4-Tronic**

The Original 4WD Sedan

Flower Art in Gallery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전화 070-4659-4914 / 쌍용자동차 이펙트라이프 (www.wexperience.co.kr) 참조

• 일시 및 장소 : 12/11(수) 가나아트센터 • 모집 기간 : 12/6(금) 까지 • 응모 대상 : 2013년 11월 30일 이전 출고고객에 한함 (여름부터 12월 7일) • 당첨자 발표 : 12/9(월)

본 장면은 2013년 11월 21일, 웰리힐리파크 스키장 슬로프에서 실제 촬영된 주행 이미지입니다.
4륜구동의 영가 쌍용자동차의 스키 슬로프 주행 영상을 확인하세요
www.facebook.com/SsangYongStory

TAKE 4-TRONIC 캠페인 12월에도 당신의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해!

① Free 4-Tronic (AWD 무상 제공) ② 개별서비스센터 100만원 지원 ③ 최고급 호텔 숙박권 증정 (국내선, 전수출 Zero/5.5% 지원/06~12개월)

구인 | 광주권 | 광주중앙 529-0003 · 서광주 383-3434 · 광주광산 952-3330 · 북광주 971-0990 · 광주중앙 655-4001 · 동광주 515-1900
전남권 | 순천 745-3666 · 순천중앙 723-7100 · 신여수 654-5522 · 목포중앙 277-8000 · 무안 454-0099 · 화순 371-3555 · 장흥 863-2600
 나주 334-2727 · 강진 433-3100 · 해남 537-3100 · 담양 383-5811 · 청성 395-0007 · 완도 554-4545 · 영광 353-9500 · 고흥 835-5050
 여천 685-4800 · 보성 852-2892 · 광양 761-8900 · 동광양 791-0071

■ **쌍용자동차와 미래를 함께 할 쌍용가족을 모집합니다**
 - 판매수수주+인센티브+정착지원금 - 매월 판촉활동 지원금 추가지급 - 판매 우수자 해외모터쇼 참가 - [공고/접수] www.smotorecruit.co.kr